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단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단내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단내

완성된 이름

단내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단내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높은 열에 놓거나 달아서 나는 냄새.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단니	-	-	-
단내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높은 열에 놓거나 달아서 나는 냄새.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단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높은 열에 놓거나 달아서 나는 냄새.

☞ 단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단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단니 사전 표기 요약	—	—	—	—	●→	—
단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단니
19세기20세기
- 단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단니, 단내



단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단내’의 옛말인 ‘단니’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단니’는 타지 않는 단단한 물체가 열로 몹시 뜨거워지다를 뜻하는 동사 ‘달-’과 관형사형 어미 ‘-니’이 결합한 ‘단’에 코로 말할 수 있는 온갖 기운을 뜻하는 명사 ‘니’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ㄷ’가 ‘ㄱ’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ㄱ’도 ‘ㄱ’로 변하면서 ‘단니’는 20세기부터 ‘단내’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단내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단니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단니

출처 1869 규합총서 10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흙으로 항 밋틀 발나 솟불에 말히면 단니가 누지 아닐 거시니.

㉮ 현대어 풀이

흙으로 항아리 밑바닥을 발라 솟불에 말리면 단내가 나지 않을 것이니.

출처 19세기 광재물보 2:41 ㄱ

용례 02

66 문헌 용례

焦 단니.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단니, 단내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단니, 단내

출처 1921 조선일보 12월 13일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각금 밥에 단니가 나고 국에 든 무가 설닉어서 씨니를 거르기도 한다 후오니 그도 싹흔 노릇인가 후압나이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동아일보 12월 1일 석간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빈속에 거름을 퍼 나르랴니 코에 단내가 난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6 문헌 용례

불을 잘못 살피서 밥이 늦게 되어 단내가 몹시 나거든 얼른 참숯(木炭) 한 덩어리를 물에 깨고 시 써서 밥 우에 언저 노코 밥숯해 뚜껑을 꼭 덮혀 잠시 불을 물리지 말고 두었다가 푸면 숯이 단내를 모도 빠라 버려 냄새가 안 나게 됩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단내의 보충 설명

중세 국어에서부터 ‘달다(焦, 熱)’라는 말은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현대 국어에서 ‘달다’는 ‘다리미가 달다, 얼굴이 화끈 달다, 애가 달다’ 및 ‘(약을) 달이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내 관련 낱말

달다



단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무림 2020 《국어 어원 사전》 지식과 교양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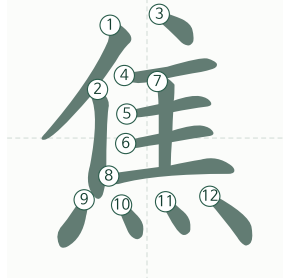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단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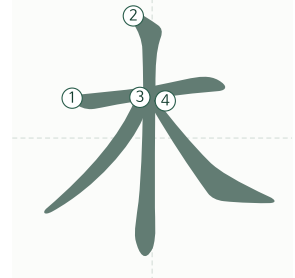
뜻·음 탈[燥] 초
총 12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焦/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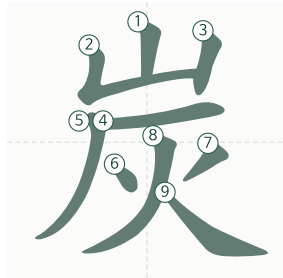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木/

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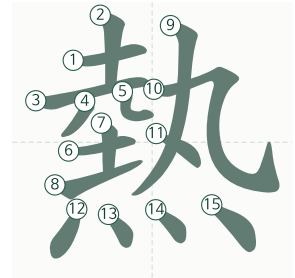
뜻·음 숯 탄
총 9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炭/

熱

뜻·음 더울 열
총 15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熱/